

“장기미집행 공원 일시 해제면 난개발” 심철의 시의원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14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따른 광주시 대안 미흡과 광주 국제영화제의 정체성 부족, 민선 6기 시정 난맥상 등이 지적됐다.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마련을”=심철의(서구 1)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오는 2020년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광주의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971만1186㎡로, 수용비만 1조7700억 원이어서 시의 재정상태로는 부지 매입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어떠한 대안 제시도 하지 못한 채 최근에 정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만 바라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또 “광주지역 100가구 중 절반을 훨씬 웃도는 63가구가 아파트다”라며 “주택보급률,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건설허가는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관리와

광주국제영화제 정체성 찾기 시급 서미정 시의원

민선 6기 시정 장에는 소통·전략부재 김보현 시의원



심철의 시의원 서미정 시의원 김보현 시의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국제영화제 활성화 대책 촉구=서미정(비례) 의원은 “광주 국제영화제는 문화산업일뿐 아니라 시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사업과도 연계된다”며 “광주만의 독특하고 상징성 강한 영화제로 거듭나려면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따르면 2001년 시작한 광주 국제영화제는 5년 간 국·시비를

받았지만 2006~2010년 영화제의 정체성 모호, 조직위의 불협화음 등의 영향으로 지원이 끊겼다. 이후 2011년부터 시비 지원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연도별로 1억원, 1억2000만원, 1억9000만원, 2억원, 3억원에 그쳤다.

행정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2013년 관객 수 4671명에 티켓 판매액 1500여만원에 그쳤다. 2014년 5113명·550만원, 올해 5973명·241만원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저조하다.

특히 수십 명이 근무하는 다른 영화제와 비교하면 광주 국제영화제는 상근자 1명, 단기 계약직 2명만이 근무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민선 6기 시정 난맥상 원인은?=김보현(서구2)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

선6기 의미 및 시정평가와 함께, 윤 시장 체제 시정 난맥상의 원인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진정성 없는 소통, 전략부재에서 오는 시정의 혼란, 구제성 없는 혁신이야말로 시민중심 시정의 가장 큰 장애”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통부재의 사례로 몇 차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와 쌍방향성이 크게 떨어지는 시청 홈페이지를 꼽았다. 김 의원은 광주의 3대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략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은 현대기아차, 에너지산업은 한전, 문화산업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광주 3대 대표 육성산업이 외부환경에 매몰될 수 있어서 시 차원의 독자전략, 추진의지, 자체 예산 마련 등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은 노선과 공법을 둘러싼 오랜 난맥상을 극복하는 시정혁신의 사례가 되어야 함에도 찬반은 정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아직도 건설방향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만58세~60세까지 임금 10~30% 삭감

전남개발공사는 노사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 기존 임금의 90.80%, 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의 정년은 1·2급이 60세, 3급 이하는 57세로 이원화됐 있으나 내년부터 모두 60세 정년이 적용된다.

개발공사 직원 대다수가 50대 초반이어서 앞으로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거의 없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2016년과 2017년엔 각 1명에 불과하고 2018년과 2019년엔 대상자가 없다. 2020년(4명)부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늘어난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전체 직원 평균 연령이 42세여서 2020년 이전에 임금피크 대상자가 많지 않아 노사 간 큰 이견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전남개발공사 전체 직원은 116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쌀값 안정·소비촉진대책 마련하라”

전남도의회, 쌀값 폭락 대책 촉구 건의안 靑·국회 전달

전남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정곡 80kg당 산지도매가격이 작년 15만원보다 1만8000원이 하락한 13만2000원으로 쌀값 하락(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가격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87만1000t 보다 37만1000t이 감소

한 올해 50만t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밥 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정부는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R&D)사업 추진 확대를 통한 산업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쌀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현행 ha당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슨 얘길 나눌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 보조기구센터 직원들, 고용불안 시달린다

전국 유일 2년 기간제 근로형태 4년간 취업 15명 중 10명 사퇴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광주 보조기구센터 직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기간제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센터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탁기관 변경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서미정 의원은 14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보조기구센터를 ‘2억 원짜리 섬’에 비유하며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매년 국·시비 1억원씩을 들여 운영되는 광주 센터는 연간 650명 이상의 지역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선대학교가 수탁·운영 중인 호남권역 제

활병원이 센터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11개 센터 가운데 2012년 1위, 2013년 2위 등 높은 이용 만족도를 보였지만 4년 운영 기간 15명이 센터에 취업해 10명이 그만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기간제 고용의 근로형태를 유지한 영향이 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종사자 잦은 교체, 관리사업 인력부족 등

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젊은 직원들이 2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7만명 지역 장애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종사자의 잦은 교체는 서비스 질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는 시정 방침에도 맞지 않다”며 “재활병원장에게 고용구조의 변경을 촉구하고, 무기계약 전환이 어렵다면 고용 지속성이 라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주변

교통 불편대책 세우야

장영희 북구의원 촉구

광주시 북구의회 장영희 구의원은 최근 제22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주변 교통체증 및 불법주차문제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경기장 주변 주차장 문제 등과 관련, “경기장 주변 과다소음과 야간 조명, 불법주차,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하천 유류지 임시주차장 사용, 주차장 시설 추가확보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북구 결손처분액 및 체납액 문제와 관련해선 “(구의 경우)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결손처분액(2012년 23억, 2013년 33억 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의 ‘38세금 기동팀’ 운영 등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밝은광주안과 의원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수술 / 無통증 / 無봉합 / 無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